"압구정 50평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아닌가"

민주, 최경환·주호영 인사청문회
이중 소득공제·탈세 의혹 등 추궁

국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아파트 매매가 축소신고, 증여세 탈세, 소득세 누락,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탈루,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가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 재선거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공천 대가성 의혹이 있는 후원금 3천4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99년 압구정동의 5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최소 2억5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2001년에 팔았다"며 "최 후보자는 과세기준이 완화됐을 때 거주하지도 않을 아파트를 구입한 뒤 과세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에 이를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 냈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2006~2007년 배우자가 4천400만~1억8천여만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이중소득공제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으며 역시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는 2001~2002년 160만~76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 고지로 납부했다"며 "고의로 누락했다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천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아닌 중앙당에서 했다"며 "당시 인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이중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가정주부여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소득이 들쭉날쭉해서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주 후보자가 2003년 5월 구입해 현재까지 소유 중인 강남구 대치동의 A아파트(105㎡)를 놓고 탈세와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주 후보자가 A아파트를 1억3천500만원이라는 헐값에 구입했는데 당시 시세는 6억원 이상이었다"면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자의 두 아들이 5천여만의 예금이 있는 것과 배우자가 1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는데 왜 배우자, 자녀 명의로 예금을 많이 들었느냐"고 추궁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주 후보자는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굳이 택하라고 하면 대통령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약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한국전통무예 총연합회 총재 취임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거물들의 귀환 가시화

손학규·김근태 재보선 차출론 확산… 정동영 복당론 고개

오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의 차출론이 확산되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오랜만에 민주당이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정운찬 총리 카드 등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행보와 정몽준 대표 체제 출범 등으로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10월 재보선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태세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재보선 승부처인 수원 장안에 손학규 전 대표, 안산 상록을에 김근태 전 의원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간판급 인사들을 차출, 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인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점차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아직 정 의원의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말해 정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월 재보선에서 손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차출이 이뤄지고 정동영 의원의 복당이 가시화된다면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중도실용 드라이브를 상쇄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친노 그룹의 대표주자격인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시민주권모임' 활동을 통해 통합의 구심점을 자임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공천이 사실상 내정된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의 통합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물론 과거 주주들의 컴백이 현실화될 경우 차기 주자 간의 경쟁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당내 역학구도 변화 등으로 인한 갈등도 예상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는 그동안 침체됐던 당내 분위기를 활기있게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구도를 담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당장 정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 주류 일각에서는 재보선 이전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확고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수원 장안의 경우, 손 전 대표가 장고를 고민하고 있는데다 안산에서는 기존 후보 간의 교통정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계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임태희 청문회' 무산

추미애 "비정규직법 상정 사과" 요구로 파행

16일로 예정됐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일 "내일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문회 전에 상임위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되는데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양당 간사간, 수석부대표간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거부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난 7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이 추 위원장에 대해 제출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의 철회를 인사청문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의 '직무유기'에 따라 이뤄진 조치인만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당 간사는 16일 만나 인사청문회 개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몽준 당심잡기 본격화

기독인 조찬회 참석, 시·도당 위원장 오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당심(黨心) 잡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외부인사를 상대로 취임 인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15일부터 당내 전방위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 9월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데 이어 낮에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당 안팎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동시대 사람', '동시대 인물'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함께 고민하라고 한나라당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중지를 모으면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찬에 앞서 가진 중앙당 사무처 실국장과의 상견례에서 지난 2002년 대선 출마를 상기하듯 "지난 7년 전 일로 고생을 시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그 일로 나도 정치인생에서 가장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여러분은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유정복 의원의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 총재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이인기 의원 주최로 열리는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화 여야 합동토론회 장'도 찾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몽준 대표 내일 來光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15일 한나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정 대표를 비롯해 박재순·허태열·공성진·박순자·송광호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 의장, 장광근 사무총장, 심재철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7일 광주를 방문, 광주시와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광주경찰청의 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일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종합의견에서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 전반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된다. /연합뉴스

정세균 대표 오늘 전남대 특강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6일 전남대에서 특강을 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전남대 용봉홀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민주세력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 대표는 강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서거 후 민주세력이 처한 상황과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